

韓國地形區*

I. 한국지형구의 연구개보

과거 한국 지형구설정의 연구는 일찍부터 지형연구와 더불어 발전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로 전향된 것은 해방 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지형과 지형구의 연구를 사적으로 고찰하여 이것을 구분한다면 삼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제1기는 지체구조나 지질구조 즉 조식을 주로한 지형의 연구시기(1900년대)

제2기는 고위평탄면, 저위평탄면과 같이 침식과정을 발달사적으로, 즉 시대를 주로 한 지형의 연구시기(1930~1940년대)

제3기 전반은 제2기의 답습으로 평탄면연구와 구분, 후반은 지형연구와 지형구를 응용지형학적인 면에서의 연구시기(1960~1970년대)

제1기

李朝時代에 이중환의 「八域地」¹⁾는 1700년대 소산으로 사대주의 사상에서, 학문의 발달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인지 한국산맥구조를 Asia 지체구조와 관련시켜서 언급하였다. 즉 한국의 산맥을 곤륜산맥을 주종으로 하여 음산산맥과 장백산맥을 연결시켰다.

시대로 보아 약 200년 이후인 1900년대에 이르러 小藤文次郎의 「山嶽論」²⁾은 한국지형을 지체구조에 의해 추가령을 중심으로 북조선, 남조선으로 구분하고 다시 지곡운동의 방향에 의하여 요동계, 지나계, 조선계로 구분하였다. 小

藤박사의 지형구를 정리하면

북조선

개마지괴

고조선지괴

남조선 한지괴

태백산계

소백산계

한산계

이 구분이 한국에 있어 지체구조상으로 체계적인 지형구분을 한 비조이다.

소등박사의 「산악론」의 이론을 부연시켜 지체구조론을 체계화하고 지질구조에 의한 부등침식이 지형에 영향을 주는 면까지 언급한 것은 1930년대에 있어 申村新太郎박사의 「조선의 자연지리」 중의 지모론과 특수지형제편³⁾이다.

[년대로는 1930년대나 조식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여 제1기로 삼입했다]

[Richthofen의 동 Aisa 계단적지괴의 단면도에 개마지괴, 만주경동지괴와 일본의 경동지괴 표본] 4)

제2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지형연구는 일종의 방향전환기였다. 그것은 전기의 지체구조를 주로 하는 지형을 침식면을 중심으로 발달사적으로 전개시키는데 따라서 지형연구는 침식평탄면의 구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1931년에 小林貞一박사⁵⁾는 한국

* 지리학 6호, 대한지리학회, 1970. pp. 1~23

지형을 지체구조적 입장에서 지반운동과 침식을 관련시켜 발달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한국 지형을 비대칭적 요곡운동에 의하여 침식회춘으로 형성된 다운회지라 하여 침식평탄면을 고위평탄면과 저위평탄면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육백산면, 후자는 여주면, 영동면이라 하였고 고위, 저위평탄면의 경계는 충주부근이며 그 이서는 中村新太郎박사가 지적한 낙랑준평원에 대비되는 준평원이 있어 여주준평원이라고 명명하였다.

1941년에 多田文男박사⁶⁾는 한국지형은 태백산맥을 주축으로 하여 급사면을 동해측에, 완사면을 황해측으로 향한 비교적 완만한 융기운동을 한 일대경동지괴라고 하여 신구 두개의 침식면으로 구분하였다.

구침식면은 개마대지, 육백산면이며 제3세기 중엽이후의 정지시대에 형성되었고 신침식면은 낙랑, 여주면의 구릉이며 구침식면이 융기된 후에 침식회춘에 의해 형성된 주변준평원(marginal penplain)이라고 하였다.

1947년에 吉川虎雄⁷⁾는 多田박사의 론을 답습하면서 간헐적인 융기운동과 침식면을 관련시켜서 신구침식면을 구분하였고 고위평탄면의 육백산면과 저위평탄면의 여주면 중간에 있는 한강상류에 4개의 천이점을 인정하여 충주면, 제천면, 하진부면, 대관령면의 4면으로 구분하였다.

제3기

전반기는 제2기의 침식평탄면연구와 구분에 있어 1965년에 赤木祥彦는 「한국의 Pediment 지형연구」⁸⁾에 있어 저위평탄면을 대관령면, 하진부면으로 구분하여 이것을 중위평탄면이라 하였고 충주, 제천저위평탄면과 구분하였다.

1963년에 저자는 「지리산지역개발보고, 지형편」⁹⁾에서 침식평탄면구분에 있어 반복대를 고위평탄면, 답동, 서동을 중위평탄면, 주촌을 저위평탄면으로 구분하였고 토지 이상에 입각하여 지형분류를 하여 고위평탄면, 중위평탄면, 저위평탄면, 선장지, 고원,분지, 범람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동년 「首都廣域圏都市計劃調査報告書 地形篇」¹⁰⁾에서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지형면구분을 시도하였다.

즉 산지 구릉, 평야를 대구분하고 산지는 다시 평탄면에 의하여 고위, 중위, 저위, 잔구로 평야는 충적평야, 범람원, 분지, 자연제방, 하상도, 하적호, 저습지, 사지로 구분하였다.

또 1966년에 「대관령산지개발의 방향보고, 지형편」¹¹⁾에서 침식평탄면을 고위, 중위, 저위의 평탄면으로 삼구분하였다. 황병산은 고위, 유천대화는 중위, 영동면은 저위평탄면이다. 아울러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형구분으로서 지질구조선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고 다시 양지역을 고위평탄면, 중위평탄면, 평정봉, 잔구(A. 원지, B. 고립잔구)천이점으로 구분하였다.

1965년 金相昊교수는 한국 중부지방의¹²⁾지형 발달의 연구에서 고위평탄면과 저위평탄면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길천호웅이 대관령면, 하진부면, 제천면, 충주면으로 사구분한 것을 김포면을 하나 더 첨가하여 구분하였다.

1966년에 金相昊교수는 pediment 지형면의 분석을 구조특질을 통하여 형성과정을 구명하여¹³⁾침식면에 대한 미지형연구에 신국면을 개척하였다.

1967년 저자는 한강하류지형의 분류와 지형 발달에 대한 연구¹⁴⁾에서 한강하류지형의 미지형구분을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지형

학적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산지(400m 이상)		河跡湖
잔구		배후저습지
저위평탄면	상단(200~300m)	자연제방
	하단(±100m)	인공제방
pediment		斷崖
산록면		砂地
녹설면		砂礫地
선상지		草地
곡저평야		荒地
분지		蘆田
	신층	泥地
범람원	구층	針葉樹
삼각주		闊葉樹
담수지		混合林
구하도		矮松

1969년에 한국산지종합개발에 관한 연구중 태백산지역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¹⁵⁾ 다음과 같이 지형구분을 시도하였다.

- 고위평탄면(900m 이상)
- 중위평탄면(500~400m)
- 저위평탄면(400이하)
- 평정봉
- 고령지, 고위평탄면경계
- 천이점
- 원지잔구
- 고립잔구

II. 한국지형구분의 목적

지형구분의 목적은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체로 둘로 구분한다.

- 1) 지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 2) 응용지형의 하나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등의 지역계획을 위한 지형분류와 또는 지리구의 기본자료로 한다.

지형구분의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과 우리나라 지형구분의 특수적인 목적이 있다. 이것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1. 지형의 과학적 연구

지형의 일반적인 주요요소는 지형의 형태① 구조물질② 영력 및 성인③ 형성시기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형은 우리나라 고유위 지형특색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형의 특색은 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사대요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으며, 또 그중에 지배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구명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형을 과학적,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반이 안정되고 장구한 시기에 걸쳐서 침식이 진행되어 주로 삭박으로 된 만장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지형의 특색아래서 지형적 요소중에 어느점에 중점을 두고 다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취급하는 경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지형 즉 고위, 중위, 저위평탄면을 다루는데는 지형의 형성과정이나 형성시대의 파악등 지형발달사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춘천분지의 pediment 지형을 다루는 지표구성물질과 이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의 분석에 즉 영력, 성인적입장에 따라, 또 만장년기나 노년기 지형을 다루는데는 사대요소중에서 고도, 경사, 기복, 사면형 등에 중점을 두고서 형태적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형을 다루는데는 자연요소 자체에 여러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지형을 다루는데

에도 여러 입장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형 연구가 지형구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보다는 그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연구자의 입장에 의하여 산만하게 다루어 졌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2. 응용지형학의 일분야로서 연구

지형의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전기한 바와 같이 지형의 주요사대요소(형태, 구성물질, 영역 및 성인, 형성시기)는 어느 특정지역에 있어서 지사적 소산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련은 지형의 계통적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지형분류나 토지분류에의 응용에 있어서도 주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형분류의 본래의 목적은 전기한 바와 같이 토지자연의 종합적 또는 계통적 파악을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 보호 등의 계획을 위한 토지분류에 공헌하는데 있다.

최근 지리학뿐만 아니고 지역현상에 대한 연구로서의 지역구분에 지형분류나 지형지역구분과 같이 지형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자연지역구분이 대두되었다.

지리학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계통적인 지역구에 의하여 명확히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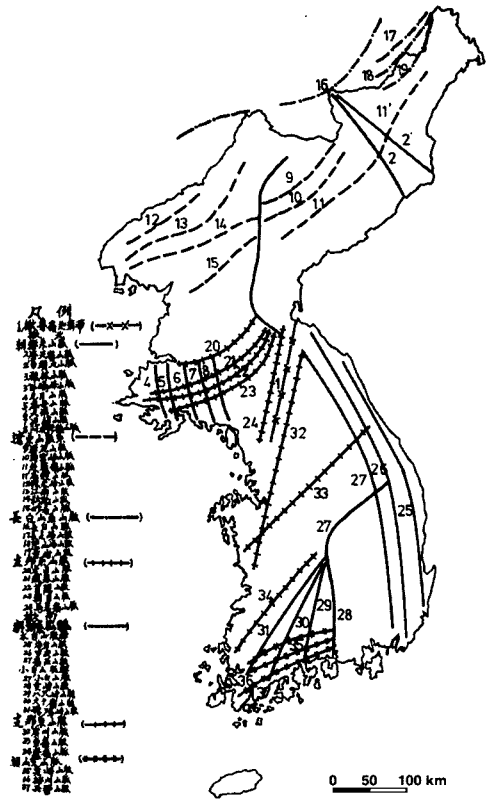
또 어느 지역의 인간 활동 이라는 것도 그 지역의 지형을 무대로 전개되는 것이 많아서 인문적인 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지리구는 자연요소의 종합 즉 토지구분 또는 자연지역구분으로 다루어지거나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지형이다.

과거 우리나라 지리구가 지형이라는 단일적 요소에 의하여 구분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도 그러한 지리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

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나라의 지리구가 지형구



〈그림 1〉 우리나라 산맥계구분도

우리나라 산맥의 구분에 있어서는 일본지리학자 小藤文次郎에 의하여 「山嶽論(1901,1902)」에서 조선계산맥, 요동계산맥, 지나계산맥으로 한 것이 시조라 하겠다.

저자는 이것에 의하여 전국의 산맥을 계별로 구분을 하여 작도를 시도하였다. 전기 삼대구분 이외에 장백산맥, 한산계 산맥도 있다. 조선계의 태백산맥군의 내지산맥은 영서산맥(27)으로 개정한 것을 특기한다.

에 의하여 구분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구는 지리구에 앞서 지형요소만으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구와 지형과의 밀접한 관계는 지리구와 지형과의 불가분한 관계를 초래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리구는 토지구분이나 자연지역구분이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형구가 있어야 만이

비로소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표 2도 우리나라 절봉면 구분)

Ⅲ. 한국 지형구설정 및 지표

우리나라 지형구설정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지형구설정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실지로 지형구설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지형구의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요소에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형의 사대요소인 형태, 구성물질, 영력 및 성인, 형성시기에다 둔 구분이 있으나 문제는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지형의 사대요소의 유기적인 결합관계 지역에 전개되는 만큼 이중에서도 현지형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를 발견하여야 한다.

한국지형구설정에 앞서 외국의 대표적인 지형구설정을 보면

1) 경제적 지형구분

토지의 고위, 기복 및 배열상태에 의한 구분 D.L.Buck의 지나지형구(토지이용상의)¹⁶⁾가 있고 과거 한국의 지형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지체구조에 의한 지형구분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 있어서는 대지형이 지체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W. D. Davis¹⁷⁾나 N. M. Fenneman¹⁸⁾의 대구분에 있어서 조직을 주요소로 하였고 한국에 있어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小藤, 中村박사에 의하여 이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림 2〉 한국 절봉면구분도

절봉면의 높이는 지반운동과 그 후의 침식으로 인한 산정사박의 저하량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체구조가 동해측에 급경사를 서해측에 완경사면을 향한 비대칭적 경동지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태백산맥군이나 개마고원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 오랜 침식작용으로 동해측에는 고위평탄면이 서해측에는 저위평탄면이 발달되고 곳곳에 잔구도 나타나 있다.

남한에서는 지부계의 광주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과 조선계의 태백산맥군과 소백산맥군이 현저이 나타나고 영남분지와 호남평야와 같이 저하된 절봉면과 대조적이다.

남한에서는 개마고원과 서해안의 요동지나산맥의 구분이 현저하다.

3) 지형의 사대요소(형태, 특질구조, 성인 및 영력형성시기)

지형학적 입장에서 지형의 특성을 초래한 주요인을 중심으로 타요인을 고려한 구분, N. M. Fenneman의 전지형구의 중. 소 단위구분 또 渡邊光의 일본지형구¹⁹⁾의 중단위 등이다.

4) 목적적 구분

지형분류의 본래 목적은 토지자연의 종합적 또는 계통적인 파악을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위한 토지분류에 공헌하는데 있다.

또 응용지형학적견지에서 토지분류 또는 토지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본자료로서 지형분류가 필수적이지만 사용목적에 그 구분은 달라진다.

일본 西村嘉助의 응용지형학(1969)이 그 좋은 예이다.

저자가 시도한 지형구분설정에 사용한 기본도는 다음과 같다.

- ◎...표는 저자가 작도한 것
 - ...인용한것
 - 한국지체구조도 ○ 한국절봉면도
 - 한국지질분포도 ◎ 한국절봉면도분도
 - ◎ 한국지질구분도 ◎ 한국경사분포도(분도)
 - ◎ 한국고도별도분도 ◎ 한국토양구분도
 - ◎ 한국산맥분포도 ◎ 한국지형구분도
 - ◎ 한국하계망도 ◎ 한국지리구도
 - ◎ 한국분지고원분포도 ◎ 한국생물구도
 - 한국농업구분도 ○ 양구출천부근 절봉면도
 - ◎ 지리산지형구분도 ○ 면목동절봉면도
 - ◎ 수도권지형구분도 ○ 예봉산, 도곡절봉면도
 - ◎ 대관령지형도분도
 - ◎ 한강하류지형구분도 ○ 제주도토지이용도
 - ◎ 제주도지형구분도 ○ 제주도토양구분도
 - ◎ 오대강류역토지이용도
 - ◎ 평창지역지형도분도 ○ 중부조선절봉면도
 - ◎ 충주부근절봉면도
- 이것에 사용된 지도 및 지형, 지질도는
...표는 주요지도
- ◎ 1/25,000 지형도 - 미지형분류

- ◎ 1/50,000 지형도
- 1/25,000 지형도
- 1/25,000 입체지형도(지형구분 최소지형단위설정구분)
- 1/500,000 지형도
- 1/1,000,000 지형도
- 1/1,000,000 지질도
- ◎ 1/2,000,000 지형도(한국지형도의 작도)

지형분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N. M. Fenneman(1916)의 U.S.A 의 지형구분이나 일본의 渡邊光(1952)의 일본지형구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강적 분류방법과 상승적 분류방법이 있다.

1) 하강적 분류방법

이 방법은 연구대상지의 광역을 카바하는 대단위구를 지체구조나 지질구조에 의하여 설정하여 이것을 다시 지형의 사대요소(형태, 구조물질, 영력 및 성인 형성시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이에 의하여 지역적인 상위에 착안하여 순차로 중단위지형구, 소단위지형구로 세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지형특색을 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2) 상승적 분류방법

하강적 분류방법에 대하여 이 방법은 주로 지형분류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최소단위의 지형단위를 설정하여 이러한 독립된 개개의 지형단위를 종합하여 중단위지형구로 다시 이것을 대단위지형구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지표면은 몇 개의 등질의 지형단위가 복합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보며 최소의 지형단위는 같은 성격을 내포한 지형을 설정하여 그 지역적인 넓이를 잡아 이질의 지형

과 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설정이 된다.

그러면 실지로 한국지형구를 구분하는데는 첫째로 최소의 지형단위를 어떠한 지표와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였는가가 문제가 되고, 둘째로 지형 구분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하였는가가 문제가 되고, 셋째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였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의 지형단위의 종합체계화에 의하여 지형지역의 지리구를 설정하는 경우에 지표선택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전기한 지형구분에 가장 중심문제가 되는 최소지형단위설정, 지형구획정, 지형구분에 사용되는 기본지도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지형구 설정에 독립적, 개인적인 역할도 한 주요한 점은 이러한 요소조건을 종합하여 실례로서 논설코져 한다.

한국지형에 있어서 최소지형단위라면 지형의 상승적 분류방법에서 적용되며 그것은 최소로 구분되는 어느 지역의 미지형에 해당하며 최소구분이라는 것은 미지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지형분류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구분은 달라진다.

한국평야에서 예를 들면 평야에는 퇴적평야와 침식평야가 있다. 퇴적평야에 있어서 범람원(flood plain)은 홍수시 하천의 범람으로 연안 일대가 사역, 토사, 점토, 이사 등을 퇴적하게 된다.

이 범람원은 미지형구분을 한다며는 자연제방(natural levee) 배후저습지(back marsh) 하적호 또는 우각호(oxbow lake) 등이며 수성, 압록강하류, 길주, 북청, 함여, 영여, 안변, 안주, 대동강하류, 재영, 만주, 정백, 파주, 김포, 평택, 오산, 안성, 장호원, 홍문, 예당, 미호, 강경, 논산, 서천, 영주, 안동, 예천, 성창, 상주, 선산, 김해, 밀양, 창녕, 선령, 창원, 함안, 사천, 안강, 김제,

옥구, 신태인, 나천, 광주, 영광평야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충적삼각천(alluvial delta)에도 이와 같이 미지형이 있으며 이 이외에 정치층, 전치층, 저지층으로 구분하며 두만강삼각주, 대저면삼각주에서 추구된다, 충적선상지(alluvial fan)는 한국에서는 분포가 극히 제한되어 추가령지구대의 석왕사, 형산강지구대의 불국사선상지가 있고 천정천, 말무천, 야계, 망상하천등의 미지형이 있다. 선상지면은 지형분류와 토지이용면에서 선장, 선양, 선단, 선측으로 구분한다.

침식평야의 준평원도 한국에 있어서는 분포가 제한되어 낙랑, 여주, 부평, 황등 등이 대표적이며 원초, 종말 주변용기준평원으로 구분되고 고립도상구능과 변경, 원지잔구, 평정봉(Flat topped Mt.)등의 미지형은 모두 최소지형단위이다.

한국의 산지는 장구한 기간 안정된 지형이 삭박을 받아서 침식과정이 대부분 만장년기 내지 노년기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만장년산지(late mature mts.)는 일명 종순산형(subdued form)이라고 하며 산록에 완사면의 발달이 양호하며 pediment, 녹설면(colluvial slope), 애추(talus) 산록계(piedmont bench land) 등의 미지형구로 구분된다.

포천, 면목동, 도곡, 춘천, 양구, 남한강, 북록, 안산, 응봉, 구례 등이 대표적이다.

분지에 있어서는 산간곡강, 침식, 고원성분지로 구분되며 분지내는 현재 침식퇴적작용이 계속되어 전자는 pediment 후자는 선상지(fan) 녹설면(colluvial slope) 애추(talus) 등의 미지형으로 세분된다. 운봉, 해안, 담양, 거창, 의성, 보은, 청주, 진천, 양구, 진주, 서울 등이 대표적이다.

해안지형에 있어서는 동해안은 용기해안이고 사주(sand bar), 해안외주(offshore bar), 석호

(lagoon), 해안단구(coastal terrace) 등이 발달되고 남해, 서해안의 침강해안에는 해교(seaarch), 갑각(promontary), 육계사주(tombolo), 육계도(land tired Island), 익곡(drowned valley)과 대륙붕(continental shelf) 등의 미지형이 발달되었다.

끝으로 한국산맥중에는 습곡산맥과 단층산맥 지괴산지 등이 있고 단층산맥중에서 지루(horst) 지구(graben) 등으로 구분된다. 또 일반 산맥중에는 고위, 대화는 중위, 영동 여주지방은 저위 평탄면이 발달되고 금강산은 대표적인 잔구이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미지형이 지형구분의 최소단위가 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지형을 전국지형구설정에 있어서 총망라한다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으며 또 작도상 불가능 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전국 지형구 설정보다도 지역적인 미지형의 연구로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전국지형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미지형이 결합되어서 적절한 지형단위가 구성 되도록 상승적 분류방법으로 종합하여 적당한 지형단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지형도를 축도하여야 되나 이것으로 인하여 자연 소멸되는 지형이 생기게 되어 사분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축척의 지도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말로 표현하여 실례를 들면 지도는 마치 어느 목적에 따라 선별하려는 토양의 구성물질을 여러 종류의 사에 의하여 사분하는 사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지형구분도 그 목적에 따라서 지도는 지형단위선별의 로과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저자는 우선 이만오천분의일 또는 오만분의일 지형도에 의하여 전국지형을 미지형구분을

시도하여 이것을 이십오만분의 일 축척의 지형도에 겹쳐서 사분을 하여 보았다.

대부분의 미지형은 자연소멸이 되고 선별된 지형단위는 퇴적지에서는 선상지(alluvial fan, 석왕사, 불국사) 삼각주(alluvial delta, 두만강 하류 대저면)가 침식지형에서는 준평원(penplain, 낙랑, 부평, 여주, 황등)이 남게 되고 평야중에서는 군단위 평야(김포, 파주, 평택 등)는 소멸될 염려는 없으나 면단위정도는 소멸될 수 있는 지형단위라 잠재지형으로 확보를하였다. 오산, 장호원 평야등이 그 예이며 분지도 평야와 같이 군단위는 문제가 안되고 면단위 분지는 역시 잠재지형으로 되는 해안, 운봉, 합수, 백암, 고인동, 평강, 청안 등은 확보하였고, 해안에서는 단구(영덕), 저지(평해, 죽변)등이 선별된 최소지형단위이다.

이러한 지형은 전형적인 단독적 지형단위를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다고 인정된다. 지형도 사용에 있어서 이십오만분의일 지형도는 우연히 사용하게 된 지도가 아니고 여러 축척의 지도를 순서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국지형구에 적절한 축척의 지도를 얻은 것이다.

지형구분의 작도과정에 있어서 이만오천분의일, 오만분의일, 이십만분의일, 이십오만분의일, 백만분의일, 이백만분의일 지형도로 축소함에 따라 소멸되는 지형은 자연무시되는 지형으로 인정선별된 지형단위의 적정화를 기도하였다

이십오만분의일 지형도에서 포착된 지형단위는 그대로 살려서 파악을 하였고, 소멸된 지형중에서는 전기한바와 같이 선상지나 면단위의 평야 분지 등은 소멸지형이지만 소위 잠재지형으로 재현시켜서 단독 지형단위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며 확보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별된 지형단위는 타지형과 엄격히 구별이 되어 지형경계를 획정하는 기본표



〈그림 3〉 한국지형도

준이 되게 되었다.

평야나 구릉지가 교착된 지형에 있어서는 양 지형단위로 구분할 경우 고도나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여 단독적 지형단위를 파악하였다.

또 가능하면 응용지형적 견지에서 종전부터 관용되어온 분지, 평야구릉, 저지고원, 개석고원, 지구대, 현무암대지, 간석지, 주요도서, 반도, 소안래지, 산맥등을 지형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군단위는 그대로 택하였고 특수한 단독 지형단위를 구성 할 수 있는 지형에 한하여서만 재현 지형으로 면단위까지 택하였다.

○ 대단위지형구

한국에 있어서 대단위라고 하는 것을 한국내

에 한하여 최대단위라는 뜻이다. 대단위라 해도 미국 태평양산계의 한 지형구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좁은 지형구내에 복잡한 각종 지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형구의 지형적인 성격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이 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너무도 적은 지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지체구조나 지질구조 등의 조직을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나라 지형은 아시아의 지질구조를 고려치 않고는 파악키 곤란하다는 것은 전기한 Richthofen 의 개마지괴²⁰)에서 지적한바도 있고 또 小藤次文郎의 楸哥嶺地溝帶²¹) 및 한국산맥의 주향을 조선계, 요동계, 지나계로 구분한 것과 지체구조상으로 지형구분한 것, 즉 I. 추북 II. 추남(추가령지구대로 구분) I. 추북(한국북부)을 다시 a. 개마지괴 b. 고한지괴 II. 추남(한국남부)은 a. 한지괴라고 하였다.

한국의 지형이 노년기적 종순지형이라고 하여 지형의 사대요소중 지형의 형성시기에만 또는 영력에만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지형의 성인이나 한국지형의 고유한 특성이 전기한 바와 같이 영남분지나 개마고원, 태백산맥계(조선계) 옥천지향사, 평남지향사의 차령산맥, 황주산맥 노령산맥(지나계) 강남산맥(요동계) 과 같이 지체, 지질구조에 좌우된 것이 적지않다.

이러한 대단위 지형구의 지형특색이 지체,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형의 성인과 영력시기 또는 형태를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지형적인 요소가 현지형의 특색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는가가 문제이다.

○ 중단위 지형구

중단위에 있어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지형의

사대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또는 고유한 지형적 특성의 지역적 분포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이 중단위지형구분에 있어서는 고원, 산지, 산맥군, 분지군, 구릉군, 대평군, 지구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고도별구분도 참작하였다. 예를 들면 대단위영남분지가 다시 금호분지, 낙동강 상류 지역 소백서북산록, 태백산맥산록, 경남평야등 중단위로 구분된 것은 지리구와도 일치되지만 고도별로 보면 산지(500m이상) 구릉(500m), 분지, 평야(100m 이상) 산간 산록등 지역적 격차가 있다.

이러한 중단위의 지형구 중에는 산맥군이나 산맥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태백산맥군이나 소백산맥군, 함경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등 이러한 경우 관동지방에서의 태백산맥 영남 지방에서의 태백산맥을 구분하여 지역적 분포를 통한 지형의 특색을 파악하는데 노력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산맥을 계통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이 중단위지구의 지형에 있어서는 대단위보다도 지형의 성인 및 영력, 형성시기를 조직보다 더 중점을 두고서 다룬 것은 물론이다.

○ 소단위지형구

전기한 중단위를 다시 소단위로 구분하여 미지형까지 다룬 것이며 이 소단위는 지형의 사요소중 형상보다는 형성시기에, 시기보다는 성인 과 영력을 물질구조를 통하여 구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취급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지형 즉 소단위의 지형구에 나타나 지형의 특성을 특미있게 작용한 주요소를 발견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소단위의 지형에 있어 대단위에서의 조직이나 또는 중단위에서의 지형의 지역적 분포관계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참작하였다.

소단위지형구내의 지형이 내적작용 보다는 침식, 운반, 퇴적의 외적작용이나 침식 윤회의 시기 또는 암석 등에 의하여 차별침식으로 특징 있게 된 것은 전기한 바와 같다.

이러한 예는 중단위의 형산강지구대를 울산만저지, 포항만저지, 경주분지, 불국사, 선상지, 병영구릉으로, 또 추가령지구대에 있어서 석왕사선상지, 삼방곡지, 철원고지, 현무암대지로 경기지방에서 여주, 이천준평원, 부평준평원으로 태백산맥군의 중단위지형을 다시 해안산맥, 중앙산맥, 영서산맥으로 구분하고 중앙산맥에서 지루(Horst)를 구분한 것 등이다.

다만 지형구설정방법에 있어서 전기한바와 같이 대단위에서 소단위로 세분하는 하강적인 방법과 반대로 소단위를 종합하여 대단위로 설정하는 상승적방법이 있다.

지형의 고유한 특성은 어디까지나 지형제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이 지역적 분포를 통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지형의 특성은 상승하는 방법과 같이 최소단위의 지형을 구명하는데서 파악이 된다. 따라서 이 두가지 방법을 겸용하여 지형구분을 시도하였다.

지형구분의 목적에 따라서 하강적방법은 지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고, 상승적방법은 토지의 이용, 개발을 전제로 하는 지형분류의 기본적 자료로 연구하는 응용지형적인 방법이 된다.

소단위의 미지형구분문제는 전기한 바와 같이 이십오만분의일 지도에서 소감되는 것은 제외되었다. 작도상의 곤란성을 피할 도리가 없어서 즉 삼각주(delta)나 선상지(fan), 준평원(peneplain), 충적평야(alluvial plain)등 중지형의 특색을 독립된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단위까지 세분하고 충적평야를 다시 범람원, 자연제방, 하적호, 배후저습지, 배후구릉등 미지형으로 구분

하는 것은 소단위지형을 연구하는데 양보하고 한국지형구 설정이라는 입장에서 부득이 무시할 수밖에 없다.

대만지형구²²⁾²³⁾와 같이 산지, 화산, 대지, 분지, 해안을 함께 묶어 나열하는 지형구분 방법은 지형의 지역적분포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양해야 한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갑산고원과 진안고원, 운봉고원이 각각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같이 나열 표기하였다면 지형의 지역적인 분포의 뜻은 상실하게 되며 이러한 고원은 그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IV. 한국 지형구분

1. 추북

한국 지형구분의 대구조선은 추가령지구대(서울 - 원산 간의 화강암침식곡)이다. 이 지구대의 북부를 추북이라 하고 반대로 남부를 추남이라고 하며 지형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북은 일반적으로 산악성이고 그중 개마고원은 동해측에 급사면을 만주측에 완사면을 향한 약 1500m이상의 비대칭적 경동지괴이며 그 일부는 두만강, 압록강, 양강에 의하여 개석된 개석고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서부에 있는 평북산지는 이 고원보다 일단 낮은 약 600m내외의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고원 남부의 평남 황해지대에는 고한지괴가 접하고 있다.

A. 개마지괴²⁴⁾

전기한 바와 같이 이 고원은 청천강 구에서

함흥을 동결하는 선 이상의 지역을 말하며 단층 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경동지괴로 이곳에는 요동계, 조선계, 장백계, 산계에 의하여 기본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1) 동북구릉지²⁵⁾

이 구릉지는 청진, 회령을 연결하는 지질구조선의 개마지괴, 동북지대로 약 500m내외의 구릉으로서 평안계의 협탄층, 조선계의 석회암통, 백악기의 화강암, 제3기의 삼기층등 여러 층의 지질구조를 가진 것이 특색이다.(지형구분 설명성략)

(1) 오용천 유역

평안계의 협탄층이 분포되고 상류는 고원성 개석분지 하류는 요동계의 계곡에 곡저저지가 발달되었다.

(2) 두만강 연안

이 연안은 사행으로 인한 연안저지와 하류의 삼각주(delta)지대로 되었다.

a. 두만강삼각주(이하 소단위는 별도지형지편에서 다룰 예정임)

b. 두만강연안 저지

(3) 동해연안

해안지대는 주로 화강암, 남부는 결정편마암으로 되어 도서, 만입, 해식애가 교차된 소위 중성해안이고 남부는 침강된 경성만이 있다.

a. 웅기만 저지

b. 나진만 저지

c. 이진만 저지

d. 사진만 저지

e. 성정단구릉

f. 화단구릉

g. 고말산단

(4) 고원성분지군

이 분지는 500~1000m지 고원성 개석분지이다.

朴 魯 植

- a. 회령분지
- b. 행영분지
- c. 창녕분지

2) 경성만연안 저지²⁶⁾

청진에서 어대진까지의 침강된 만으로 해저에 익곡의 흔적이 있다. 이곳으로 주입되는 여러 하천이 동일 중심으로 집중되고 100m의 등심선이 절박하고 있고 남부에는 칠보산지괴의 해안이 있다.

- a. 청진연안 구릉
- b. 수성평야
- c. 나남분지
- d. 경성저지²⁷⁾

3) 칠보산지괴

이 지괴는 동해안측에 급사면을 내륙측에 완사면을 향하고 있다. 백두산맥중에서 분출한 칠보산(906m) 화산이 있다.

이 지괴와 개마지괴 중간은 길주 명천지구대에 의하여 절단되었고 그 후에 칠보화산의 분출로 용암이 저지를 매몰하였다.

- a. 칠보산화산암지
- b. 칠보구릉지
- c. 무수단구릉

4) 길주 명천지구대²⁸⁾

이 지구대는 어대진과 성진간의 협장한 저지로 지체구조상 추가령지구대 남은 영흥, 북은 경성만의 침강해안과 연결이 된다.

제3기의 지괴운동으로 형성된 단층곡에는 제3기 함탄층이 협재되어 있고 그 이외 칠보산의 조면암, 현무암의 칠보산통이 덮여 있다.

이 지구대의 북부에는 어랑천이 남부에는 길주, 남대천이 남류하여 각 평야를 전개하고 있

다.

- a. 어랑천 저지
- b. 영안저지
- c. 명천저지
- d. 길주평야
- e. 성진만 저지

5) 무산고원

이 고원은 남에는 함경산맥(요동계), 북에는 장지봉산맥(장백산계), 서에는 마천령산맥(조선계)에 위요된 고원으로 두만강의 서두수, 연백수, 소흥단수, 서울수의 지류와 압록의 가림천이 해산진 부근으로 주입함에 따라 개석된 고원과 백두산 동남부에는 유년기의 용암대지로 되어 있다. 함경산맥은 장년기산지로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운다.²⁹⁾

- a. 연수고지
- b. 연암고원분지
- c. 유평동고원분지
- d. 백암고원분지
- e. 합수고원분지

1. 함경산맥(요동계)³⁰⁾

개마고원 동남변을 위요하는 요동계산맥이며 관모봉(2541m)를 비롯하여 2000m 이상의 제봉의 준령은 두만강지류와 동해안으로 주입하는 북대 남대천 등에 의하여 장년기산지로 침식되어 백암, 합수와 같은 1000m 이상의 유년곡을 형성하여 전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운다.

2. 장백산맥군³¹⁾(장백계)

두만강 회령부근에 집중되는 장고봉, 무산, 청암산맥과 두만강월안의 장백산맥은 함경산맥이 요동계에 대하여 그 주향이 동서이기 때문에

장백산맥계라고 한다.

- a. 청암산맥
- b. 무산산맥
- c. 장고봉산맥
- d. 장백산맥

3. 백두산용암 대지³²⁾

홍적세에 백두화산맥상에서 분출된 유동성 현무암으로 대지를 형성하였다. 그 범위가 서는 허천강, 동은 서두수, 남은 단천의 북대천상류, 북은 만주의 영고탑에 이르고 백두산록은 천평이라 칭하며 대부분이 유년기 대지이다.

4. 백두화산맥(조선계)³³⁾

이 화산맥은 조선계의 마천령산맥과 평행 중첩되며 백두화산에서 시작되어 대소연지봉, 간백산, 남북포태산을 일으키고 칠보지괴의 칠보산을 거쳐 멀리 동해의 울릉도, 성인봉에 이르고 있다.

5. 마천령산맥(조선계)³⁴⁾

백린화산맥과 평행중첩되어 함경남북도계를 따라 남북으로 주향하는 조선계산맥으로 요동계의 함경산맥과 교차되는 곳에 장년기의 한국 알프스산지를 이루고 있다.

6) 삼수갑산 개석고원³⁵⁾

이 고원은 허천강유역의 고도 1500~2000m 되는 개석고원으로 무산고원과 부전고원중간은 고도 500~1000m 또는 1000~1500m의 산지로 지질은 절단된 시생대의 화강편마암이며 삼수북부는 화산암으로 되어 있다.

- a. 갑산고원분지
- b. 삼수고원분지
- c. 풍산고원분지

d. 양평고원분지

e. 삼수화산암지

7) 장진 부전개석고원³⁶⁾

이 고원은 동은 삼수, 갑산 개석고원 서는 조선계의 낭림산맥, 남은 요동계의 부전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장진, 부전고원으로 분리된다. 고도 1500~2000m의 시생대 화강편마암이다.

- a. 부전고원분지
- b. 장진고원분지
- c. 어떤보고원분지

1. 조선계 산맥군

- a. 낭림산맥
- b. 와갈봉산맥

2. 요동계 산맥군

- a. 두운봉산맥
- b. 연화산맥
- c. 부전령산맥

8) 부전령연안 저지³⁷⁾

이 지대는 개마고원이 해안측으로 급경사를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단천의 북대천, 남대천, 북청의 남대천, 함흥의 동서성천강, 신상의 금진강, 안변의 남대천 등에 의하여 개석되어 상중류는 필종곡이, 하류에는 충적평야가 발달되며 지질은 남부에 시생대의 화강편마암이, 북부에 화강암 결정편암이 분포되어 침식에 차이가 있다.

- a. 단천연안 저지
- b. 이원연안 저지
- c. 북청평야
- d. 홍원연안 저지
- e. 함흥평야
- f. 영흥평야
- g. 호도반도

h. 영흥만연안 저지

I. 안변평야

9) 자성 후창개석고원³⁸⁾

중강진을 삼각형의 정점으로 하고 자성, 후창을 연결하는 저변 삼각형으로 된 약 1000m의 고원은 압록강의 지류인 자성강에 의하여 개석되었다.

- a. 자성고원
- b. 후창고원
- c. 가산동고원
- d. 중강진화산암지

10) 요동계 산맥군³⁹⁾

이 산맥군은 평북의 압록강에 병행하여 조선계의 낭림산맥에서 분기되어 동북동에서 서남서 주향으로 달리는 요동계 산맥이다. 북쪽에 강남산맥, 비래봉산릉이 있어 급경사를 북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남부에는 적유산맥이 있어 남측에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청천강 구조선에 병행하여 달리는 묘향산맥은 적유산맥과 같이 남측에 급사면을 향하고 있다. 이 산맥들은 동부에서는 1000m 이상이지만 서부로 갈수록 저평한 500m 내외의 구릉으로 변화한다. 화강편마암이나 준편마암에 절리의 방향이 나타나 있다.

- a. 강남산맥
- b. 비래봉산릉
- c. 적유산맥
- d. 묘향산맥

11) 평북산지⁴⁰⁾

이 산지는 요동계의 강남, 적유, 묘향산맥 등이 압록강 및 청천강과 그 지류에 의하여 개석되어 산간에 침식분지를 형성케 되었다.

- a. 강계분지
- b. 고인동분지
- c. 대유동분지
- d. 대관동분지
- e. 희천분지

12) 압록강연안 저지⁴¹⁾

이 저지는 압록강 지류인 충만강 합류지점에서 하류의 천입사행에 의하여 형성된 연안 저지와 댐의 수몰지 및 하류의 충적지로 되어 있다.

- a. 벽동수몰지
- b. 신의주평야

13) 청천강유역 저지⁴²⁾

평북의 요동계산맥과 청천강 사이에는 그 지류인 대녕강, 구룡강이 있어서 상중류에는 침식분지가, 하류에는 충적지가 전개되어 있다.

- a. 구성분지
- b. 운산분지
- c. 태천분지
- d. 안주분지

14) 평북 서해안 저지⁴³⁾

평북 압록강구와 청천강구 중간의 서해안 저지는 시생대에 장기간 진행된 침식으로 1000m 이하의 구릉지가 간척지, 반도, 도서와 교차된 해안이다.

- a. 의천분지
- b. 철산구릉
- c. 정주분지
- d. 신미도 기타도서

B. 고한지⁴⁴⁾

개마지괴 이남의 평남, 황해의 평안계 및 조선계 지질구조이며 지나계, 요동계의 방향을 가

진 양지괴의 중간에 개재된 중간성 계상지괴로 양계의 산맥은 서해안의 형상에 작용하고 있다.

15) 평남 동부산지⁴⁵⁾

이 산지는 주로 조선계의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연결한 500~1000m의 산지로서 북부 산정에 상원계의 경암으로 된 1000m 이상의 잔구가 있고 대동강 상류에 의하여 개석된 산간침식분지가 전개된다.

- a. 영원분지
- b. 맹산분지
- c. 덕천분지
- d. 양덕분지

16) 평남 중부산지⁴⁶⁾

평남 동부산지 이서의 100~500m 구릉지로 대석회암통지대에 용식분지가 형성되었다.

- a. 개천분지
- b. 순천분지
- c. 성천분지
- d. 강동분지
- e. 신창분지

17) 평남 서부구릉 저지⁴⁷⁾

이 지역은 대동강하류지역으로 약 100m의 삭박구릉지와 그 이하의 충적지로 되어 있다. 그 중 낙랑준평원은 중화, 역포일대의 석회암 삭박지로 개마고원의 고위탄면에 대한 저위평탄면이고 하나의 주변 준평원을 형성하며 정방산은 일종의 경암의 잔구이다.

- a. 낙랑준평
- b. 용강, 강서구릉지
- c. 대동강 하류평야
- d. 광양만간석지

18) 지나계 조선계산맥군⁴⁸⁾

고조선지괴에는 지나계 산맥과 조선계산맥군이 교차되어 있다.

1. 지나계 산맥군

- a. 언진산맥
- b. 멸악산맥
- c. 수양산맥
- d. 조일산맥
- e. 황룡산맥
- f. 마항산맥
- g. 천선산맥
- h. 두 개산맥
- i. 맹주산맥

2. 조선계 산맥

- a. 구월산맥
- b. 자모산맥
- c. 원장산맥
- d. 니현산맥
- e. 아호비령
- f. 마식령산맥

19) 황해 동부산지⁴⁹⁾

이 산지 북부는 500~1000m의 산지로 대동강 예성강에 의하여 개석되고 남부는 100~500m의 구릉지로 침식지가 발달되었으며 곡산, 신계에는 현무암대지가 있다.

- a. 곡산분지
- b. 신계분지
- c. 수안분지
- d. 신계 곡산현무암대지

20) 재녕강하류⁵⁰⁾

재녕강하류는 황주평야와 같이 삭박으로 된 준평원과 퇴적으로 된 충적지가 교차되었다.

- a. 재녕평야
- b. 황주평야

21) 예성강하류⁵¹⁾

이 강하류에는 연안, 백천의 충적평야와 구조선에 의하여 된 김천저지가 있다.

- a. 연백평야
- b. 김천저지
- c. 삭녕저지

22) 황해연안 구릉⁵²⁾

이 구릉은 지나계의 멸악산맥에 의하여 장산곶이, 또 이 산맥과 조선계산맥과의 교차로 인하여 웅진반도와 도서가 형성되었다.

- a. 장산곶
- b. 웅진반도
- c. 백령도, 기타도서

23) 추가령지구대(지나계)⁵³⁾

이 저지대는 경원선이 통과하며 추북에는 마식령산맥이 추남에는 광주산맥이 병행한다. 주로 산지는 편마암인데 반해 이 지구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었고 충동선에 위치하여 침식으로 된 저지이다. 그 후에 현무암이 분출하여 침식곡을 피복하여 용암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 a. 연천분지
- b. 철원고원
- c. 평강고원
- d. 현무암대지
- e. 삼방협곡
- f. 석왕사선상지

2. 추남⁵⁴⁾

추가령지구대의 북부를 추북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그 남부를 추남이라고 한다. 추남에는 조선계의 태백산맥군과 소백산맥군이 우리나라 척량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분기된 지나계의 광주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이 있다. 일부를 제외하면 구룡성산지가 절단된 노년기 또는 만장년기의 중순산지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중간에 영남분지가 노령산맥 이서에 조남평야가 전개되고 있다.

A. 한국지괴⁵⁵⁾

조선계의 태백산맥군은 동해에 급애를, 서해에 완사면을 향해 단층운동에 의한 경동지괴로 우리나라 척량산맥을 이루고 있고, 이곳에서 분기된 소백산맥은 추풍령 부근에서 집중된다.

남부에는 조선계산맥에 한국계(동서)가 교차되어 있다.

한편 태백산맥에서는 광주, 차령, 소백산맥에서는 노령산맥이 분기되고 이러한 지나계의 습곡산맥들은 지질구조와 일치되어 있다.

24) 태백산맥군(조선계)⁵⁶⁾

이 산맥의 주향은 북북서에서 남남동으로서 조선계라 하며 동해에 급애를 서해에 완사면을 향한 경동지괴로 우리나라 척량산맥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500~1000m의 산지로 중앙산맥, 해안산맥, 영서산맥으로 구분되며 그 중 중앙산맥은 하나의 지누를 형성한다.

- a. 중앙산맥
- b. 해안산맥
- c. 영서산맥(내지산맥은 일제때 호명)

25) 영동연안 저지⁵⁷⁾

태백산맥이 동해측에 급사면을 향하고 있어서 해안에는 하천이 짧고 급하여 협장한 저지가 빨리 되었다.

- a. 통천연안 저지
- b. 고성연안 저지
- c. 배양연안 저지
- d. 강릉연안 저지
- e. 삼척연안 저지

- c. 포천분지
- d. 광주분지
- e. 이천분지
- f. 용인분지
- g. 양평분지

26) 강원분지군⁵⁸⁾

조선계의 태백산맥군 중간에는 북, 남한강이 흘러서 종곡과 횡곡이 형성되고 영서산록과 같이 침식분지가 발달되었다.

- 1. 산간분지군
 - a. 회양분지
 - b. 김화분지
 - c. 화천분지
 - d. 양구분지
 - e. 인제분지
 - f. 해안분지
 - g. 대관령 고령지
 - h. 평창분지
 - i. 정선분지
 - j. 영월분지
- 2. 영서산록분지
 - a. 춘천분지
 - b. 홍천분지
 - c. 횡성분지
 - d. 원주분지

27) 광주산맥(지나계)⁵⁹⁾

이 산맥의 주향은 북동에서 남서의 지나계산맥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습곡산맥으로서 장구한 기간의 침식으로 북부에서는 1000m, 서울이 남에서는 300m 내외로 저하되고 산간에는 침식분지가 형성되었다.

- a. 가평분지
- b. 청평분지

28) 준평원⁶⁰⁾

우리나라 지형은 장기간의 삭박으로 인하여 노년기의 중순산지로 되어 있고 더욱이 침식기 준면에 가까운 서해안연안에는 삭박준평원을 볼 수 있다.

여주, 황등, 부평, 낙랑은 대표적인 준평원이다.

이러한 준평원은 고위평탄면 주변에 발달되어 소위 주변준평원(mirginal peneplain)이 된다. 100m 이내의 준평원 배후산지는 晩장년기산지로 산정과 산록과의 사면형이 요형으로 된 곳이 많고, 고립구릉과 잔구가 곳곳에 분포된다.

- a. 여주 이천준평원
- b. 부평준평원

29) 경기구릉군⁶¹⁾

광주산맥이 침식으로 분리되어 고립구릉이 잔구형으로 발달되었다.

- a. 고양구릉
- b. 용인구릉
- c. 양주구릉
- d. 광주구릉

30) 경기평야⁶²⁾

임진강, 한강, 진위천, 안성천 등에 의하여 형성되어 고립된 여러 단위의 평야를 합쳐서 말한다.

- a. 파주평야
- b. 김포평야

차魯植

- c. 평택평야
- d. 오산평야
- e. 안성평야
- f. 장호원평야

31) 강화만 연안⁶³⁾

황해의 침강으로 만입과 도서 및 대륙붕 등이 발달되고 간만의 차가 커서 간석지는 염전, 담으로 이용된다.

- a. 강화만 간석지
- b. 강화도 기타도서

32) 차령산맥(지나계)⁶⁴⁾

광주산맥과 같이 지나계의 우리나라 최고의 습곡산맥으로 오대산에서 분기되어 강원, 충북, 충남도계를 사행하여 장구한 침식으로 구릉화되었다.

- 1. 차령산맥 북부
 - a. 천안분지
 - b. 예산분지
 - c. 청양분지
 - d. 덕산구릉
- 2. 차령산맥 남부
 - a. 음성분지
 - b. 진천분지
 - c. 계룡구릉

33) 아산 천수만 저지⁶⁵⁾

아산만에는 삼교천과 그 지류 곡교천에 의하여 홍문, 예당의 충적지가 형성되고 덕산구릉(가야구릉)으로 서태안반도와 구분되며 한편 서해안의 침강성 리아스식 해안의 천수만과 안면도로 구분한다.

- a. 홍문평야
- b. 예당평야

- c. 서태안반도
- d. 천수만저지
- e. 안면도 기타도서

34) 금강유역⁶⁶⁾

차령산맥과 소백, 노령산맥의 중간저지를 흐르는 이 강류역에는 화강암 편마암의 침식분지가 형성되었다.

- a. 청안분지
- b. 청주분지
- c. 미호평야
- d. 대전분지
- e. 공주분지
- f. 부여분지
- g. 금산분지

35) 논경평야⁶⁷⁾

차령, 노령중간의 금강 하류 충남측의 평야로 지류 논산천, 강경천에 의하여 충적평야가 발달되고 그 주위에는 화강암의 삭박준평원이 있다.

- a. 강원평야
- b. 논산평야
- c. 서천평야
- d. 연산구릉

36) 소백산맥 북부분지⁶⁸⁾

소백산맥북부 산록은 충북의 한강, 금강의 상류로 주로 화강암지대로서 침식분지가 형성되었다.

- a. 영춘분지
- b. 단양분지
- c. 제천구릉
- d. 충주분지
- e. 괴산분지
- f. 보은분지

- g. 황간분지
- h. 영동분지
- i. 옥천구릉지

- c. 문경분지
- d. 풍기분지
- e. 성주분지
- f. 고령분지

B. 영남분지⁶⁹⁾

조선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군으로 위요되어 있는 영남분지는 지질적으로 경상계에 속하며 분지상구조를 이루고 있고 장기간의 침식으로 분지화되어 낙동강이 중앙에 흐르고 있다.

37) 소백산맥군(조선계)⁷⁰⁾

추풍령을 정점으로 거의 남북향으로 전개된 조선계산맥으로 주로 화강편마암이나 동측은 영남분지의 경상계와 경계하고 서측은 노령산맥이 달리고 있다. 이 산맥중 팔형치산맥은 하나의 지누(Horst)다.

- a. 황치산맥
- b. 팔형치산맥
- c. 옥십령산맥
- d. 비홍산맥

38) 한국계 산맥군(한산계)⁷¹⁾

태백산맥이 조선계로 거의 남북향인데 대하여 이 산맥은 동서향인 단층산맥이며 이것으로 다도해 해안이 형성되었다.

- a. 울치산맥
- b. 능주산맥
- c. 병영산맥

39) 경북 서북부분지군⁷²⁾

태백산맥산록에는 화강편마암과 화강암이 분포되어 전자는 산지로 후자는 침식되어 분지로 되었다.

- a. 봉화분지
- b. 김천분지

40) 낙동강 상류저지⁷³⁾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화강암으로 경상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침식지와 평야가 교차되었다.

- a. 영주평야
- b. 안동평야
- c. 예천분지
- d. 함창평야
- e. 상주분지
- f. 선산분지

41) 영남 태백산맥군 및 산록분지군⁷⁴⁾

태백산록일대에는 침식분지가 형성되었다.

- a. 영양분지
- b. 청송분지
- c. 의성분지
- d. 군위분지
- e. 언양분지
- f. 양산협지

42) 금호분지⁷⁵⁾

낙동강중류에 있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류 금호강이 합류되는 일대에는 평야와 같은 큰 분지가 발달되었다.

- a. 대구분지
- b. 영천평야
- c. 경산분지
- d. 왜관분지
- e. 달성분지

43) 영남 동해연안⁷⁶⁾

태백산맥이 동해로 급애를 이루고 있어 해안 저지와 해안단구가 형성되었다.

- a. 죽변저지
- b. 울진저지
- c. 평해저지
- d. 영덕단구
- e. 포항저지
- f. 장기반도
- g. 울릉도

44) 경남 서부산록지⁷⁷⁾

소백산맥의 산록지에는 화강편마암에다 화강암으로 되어 전자는 산지로 후자는 산간침식분지로 되어 있다.

- a. 협천분지
- b. 거창분지
- c. 함양분지
- d. 산청분지

45) 경남평야⁷⁸⁾

낙동 남강하류의 평야를 말하며 낙동강 하류에는 대저삼각주가 형성되었다.

- a. 김해평야
- b. 밀양평야
- c. 창녕평야
- d. 의령평야
- e. 창원평야
- f. 함안평야
- g. 사천평야
- h. 대저삼각주

46) 형산강지구대⁷⁹⁾

이 지구대는 울산, 포항간의 저지로 북부에는 형산강 남부에는 대화천이 흐른다. 영지 부근의

구릉이 분수령으로 하나의 대정곡을 이루고 지구대내는 영일 삼기층이 퇴적되고 불국사 선상지 **pediment**, 호소, 분지 등이 있다.

- a. 영일만저지
- b. 안강평야
- c. 경주분지
- d. 불국사선상지
- e. 병영구릉

47) 영남 남해연안⁸⁰⁾

조선계의 태백산맥 소백산맥군과 한산계의 산맥군이 교차되어 침강으로 인하여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 a. 부산만 연안
- b. 진해만 연안
- c. 마산만 연안
- d. 진주만 연안
- e. 충무연안
- f. 거제도, 남해도, 기타도서

C. 호남평야⁸¹⁾

지나계의 노령산맥이 사행하여 호남평야와 전남평야로 구분되며 차별침식으로 인하여 형성된 노령산맥은 일부를 제외하고 구릉화되었고 서부 소백산맥도 침식으로 산지와 분지가 교차되었다.

48) 노령산맥(지나계)⁸²⁾

추풍령에서 분기되어 노령을 지나 무안반도에 이르는 지나계산맥으로 낮은 곳에 있던 것이 경암으로 침식에 저항하여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49) 호남평야⁸³⁾

만경강, 동진강유역의 하류는 충적지 또는 간석지이지만 주변은 삭박으로 준평원이다.

- a. 김제평야
- b. 옥구평야
- c. 신태인평야
- d. 호남 서해안 간석지
- e. 황등준평원
- f. 변산구릉
- g. 고창구릉

50) 전남평야⁸⁴⁾

영남산맥 이서의 영산강유역으로 주로 영산강유역이다.

- a. 나주평야
- b. 광주평야
- c. 영광평야

51) 호남 동부산지⁸⁵⁾

노령산맥과 소백산맥간 중산지는 화강편마암과 화강암으로 되어 전자는 산지, 후자는 침식분지로 되었고 이곳에는 진안 운봉과 같은 고원 또는 고원성분지도 있다.

- a. 진안고원
- b. 무주산지
- c. 장수산지
- d. 임실분지
- e. 남원분지
- f. 운봉고원분지
- g. 순창분지
- h. 곡성분지
- i. 담양분지
- j. 구례분지
- k. 화순분지

52) 호남 서해연안⁸⁶⁾

조선계의 소백산맥과 한산계 동서방향의 산맥이 교차되어 리아스식 해안으로 다도해, 대한

식해안이라고 한다.

반도, 도서, 만입, 갑각 등이 발달하였다.

- a. 여수반도
- b. 광양만 저지
- c. 순천만 저지
- d. 고흥반도
- e. 보성구릉
- f. 장흥저지
- g. 강진만 저지
- h. 해서반도
- i. 영암연안저지
- j. 목포연안
- k. 화원반도
- l. 진도, 완도, 기타 도서

53) 제주도⁸⁷⁾

이 섬은 1950m의 화산도(산정은 종상, 산록은 순상화산)로 수직적으로 구분한다.

- a. 해안저지(±100m)
- b. 중산간지(200~600m)
- c. 산지
- d. 추자도

Summary

The Study of Physiographic province in Korea

Korea physiographic province is divided into two provinces which is northern Chugaryung graben zone and southern Chugaryung graben zone.

Northern Chugaryung is also divided in to Gema block and Kohan block, and southern Chugaryung divided into Han block, Yongnam basin and Honam plain. The above mentioned macro geomorphic units is divided, mainly on the geotectonics.

The meso geomorphic units is divided, based up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opographic characteristic that is plateaus, mountains, mountain range, basins and great plain etc. Micro geomorphic units id into a mountain, a hill, a plain, and a lowland, and then it is formed by selfreiant topographic unit. And micro topographic (fan, peneplain, delta, etc) dealt with a characteristics unit. In this article has a disregarded amallest scale that is included flood plain, natural levee, back marsh and oxbow lake etc. Accordingly, it shows macre units are meso units are 5, meso units are 53, micro units are 299.

A study method of physiographic provinces preferred to aufsteigende and abstergands methoy. How to organically combine topographic factors can be seen in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peculiar topographic characteristics, for charage teristic of topographic makes a study on the topographic of micro unit such understanding as aufsteigende method. At the same time, since it can be studied systematically from marco unit to micro unit like the absteigende methods, I used both methods. And this establishment of physiographic province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 depend on the base map of climate classification, Geology, Soil, Biology.

I feel confidnet that it will be used the basic map for land use map, land classification map, study of geomorphology of Korea. And will be used for study of a topographic standard data.

참고문헌

1. 강석오 : 1959 개관한국지리, 풍천문화사, 서울
2. 이중환 : 1730 八域誌
3. 정창희 : 1958 지질학개론 ; 한국지질개요, 박영사, 서울
4. 김상호 : 1965 한국중부지방 지형발달의 연구, 서울사대 지리과
5. 김상호 : 1966 한강하류의 저위침식면 지형연구, 서울대 출판부
6. 김옥준 : 1969 남한중부지역의 지질과 지구론, 연세대
7. 박노식 : 1963 지리산지역개발보고 ; 지형편, 국민운동재단본부
8. 박노식 : 1963 수도광역권조사 ; 지형편, 건설부
9. 박노식 : 1964 오대강 하류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유형적 분류의 연구(1, 2), 경희대학교 논문집, 서울
10. 박노식 : 1966 대관령산지개발의 방향보고 ; 지형편, 강원도
11. 박노식 : 1967 한강하류지형면의 분류와 지형발달에 대한 연구, 경희대 논문집
12. 박노식 : 1967 제주도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조사보고서, 서울
13. 박노식 : 1969 한국산지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 태백산지역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 국토종합개발연구소
14. 山本熊太郎 : 1935 新日本地誌 ; 朝鮮論, 고금서원, 일본
15. 西村嘉助 : 1969 懲用地形學, 大明堂, 일본
16. 渡邊光 : 1961 日本地形區 ; 자연지리, 응용지리 1권, 지형, 고금서원, 일본
17. 渡邊光 : 1963 지형학 ; 현대지리대계, 제1권, 고금서원, 일본
18. 田中啓爾 : 1930 日本地理風俗大系 17권, 朝鮮地方飯本信元(하), 신광사, 일본
19. 小藤文次郎 : 1902 山嶽論, 일본
20. 中村新太郎 : 1930 朝鮮の自然地理 ; 地貌論, 特殊地形誌, 일본
21. 小林貞一 : 1931 朝鮮半島地形發達史と地形との關係に對する考察, 지평(1, 2), 동경

22. 多田文男 : 1941 朝鮮の地形, 지평 17권, 동경
 23. 吉川虎雄 : 1947 朝鮮島中部の地形發達史, 지질 53, 일본
 24. 赤木祥彦 : 1965 朝鮮のpediment, 지평 38권 11호, 동경
 25. 井上禱之助 : 1907 韓國の地質及鑛産, 地學雜誌 19권, 일본
 26. 山田澄良 : 1929 朝鮮の山脈, 지리교육 3호, 서울
 27. 松田甲 : 1930 朝鮮第一の高山咸北の冠帽峯, 朝鮮 9월호, 서울
 28. 川上繁太郎 : 1926 白頭山と白頭山脈, 文敎의朝鮮 10월호
 29. 小藤文次郎 : 1902 韓國北部의地勢, 지학잡지, 14권, 일본
 30. 中村新太郎 : 1925 平壤南方의準平原—樂浪準平原, 지구 3권, 일본
 31. 淺海原夫 : 1951 地形分類에關する試案, 지평, 동경
 32. 中野尊正 : 1953 土地分類基本, 地理調時報, 일본
 33. 中野尊正 : 1961 地形分類その原理と應用, 地學雜誌, 일본
 34. 大矢雅彦 : 1960 狩野川の中下流域의水害地形의分類圖地坪, 동경
 35. 式正英 : 1960 應用地理學의最近의動向, 地形分類의發展, 지리 5-1, 일본
 36. 久間健一 : 1951 朝鮮農業經營地帶研究, 農業綜合研究所, 일본
 37. 原口九萬 : 1930 濟州道火山岩의岩漿分化에關する, 지구 13권, 일본
 38. 小林貞一 : 1927 江原道의地史, 지질학잡지 34권, 일본
 39. 小林琢治 : 1927 東西孤狀線의研究, 지구 7권, 일본
 40. 德永重康 : 1933 朝鮮鳳山炭田의地質時代, 지질학잡지 40권, 일본
 41. 立岩巖 : 1925 極同 明川 七寶山及 古站洞幅 朝鮮地質圖 4집, 일본
 42. 金窪敏知 : 1966 二萬五千分之一 土地條件圖(1, 2), 지리 11권 4호, 일본
 43. 西田與西郎, 帷子二郎 : 1940 일본지도집, 대만 지형구, 도양도서, 일본
 44. 陳正祥 : 1956 臺灣의地理區域, 지평 29권 11호, 동경
 45. 일본 農林 水産技術會議事務局編 : 1964 新農村計劃を爲る土地利用區分とその順と方法, 農林統計協會, 일본
 46. D. L. Buck : 1939 Land Utilization in China
 47. W. N. Davis : 1910 Notes on Land forms, Bull,

Amer. Geo. Soc. 42.
 48. N. M. Fenneman : 1916 Physiographic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Amer. Associ Amer Geo 6.

註

1) 李重煥 : (1727-1730) 八域誌
 2) 小藤文次郎 : (1901~1902) 山嶽論, 日本
 3) 中村新太郎 : (1930) 朝鮮의自然地理, 地貌論, 特殊地形誌, 改造社, 日本
 4) Richthofen: 東 Aisa 階段地塊斷面
 飯本信之 : (1933) 地理講座, Aisaの概説と滿洲蒙古, 地質, 日本
 5) 小林貞一 : (1931) 朝鮮半島地形發達史と地史の關係に對する考察, 地評(1,2)7. 日本
 6) 多田文男 : (1941) 朝鮮の地形, 地評, 17卷, 日本
 7) 吉川虎雄 : (1947) 朝鮮半島中部의地形發達史, 地質53, 日本
 8) 赤木祥彦 : (1965) 朝鮮의Pediment, 地評 38卷11號. 日本
 9) 朴魯植 : (1963) 智異山地域開發報告書, 地形篇, 韓國運動再建本部
 10) 朴魯植 : (1963) 首都廣域圈調査, 地形篇, 建設部
 11) 朴魯植 : (1966) 大關嶺地域開發의 方向報告, 地形篇
 12) 金相昊 : (1965) 漢江下流의 低位侵蝕面地形研究, 서울大出版部
 13) 金相昊 : (1966) 漢江下流의 低位侵蝕面地形研究, 서울大出版部
 14) 朴魯植 : (1967) 漢江下流地形面의 分類와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 경희대 논문집
 15) 朴魯植 : (1969) 한국산지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태백산지역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 국토종합개발연구소
 16) Buck, D. L. : (1939) Land Utilization in China
 17) Davis, W. D. : (1910) Notes on the discription of land forms, Bull, Amer. Geo. , Soc. , 42
 18) Fenneman, N. M. : (1916) Physiographic deivision of the United States, Amer. Associ. Amer
 19) 渡邊光 : (1961) 일본지형구: 자연지리 응용지리 1권, 지형,古今書院
 20) Richthofen : 전게서
 21) 小藤文次郎 : 전게서
 22) 中村新太郎 : (1927) 朝鮮地質構造論 序說地球8卷 日本 p. 327
 23) 西田與四郎, 帷子二郎 : (1940) 일본지도집, 대만 지형구, 동양도서, 일본
 24) 小藤文次郎 : (1902) 韓國北部의地勢, 地學雜誌, 14권, 일본, p.327.
 25), 26) 立岩巖 : (1925) 極同, 明川, 七寶山 及 古站洞幅, 조선지질도 4집, 일본

- 中村新太郎 : (1930) 日本地理大系, 조선편, 朝鮮の自然地理, 地貌篇, 改造社, 일본
 鄭昌熙 : (1958) 지질학개론, 한국지질개요, 박영사, 서울
- 27) 中村新太郎 : 전계서
 姜錫午 : (1959) 개관한국지리, 풍천문화사, 서울
- 28) 29) 김옥준 : (1969) 남한중부지역의 지질과 지구론, 연세대, 서울
 小藤文次郎 : (1962) 山嶽論
 山田澄良 : (1929) 朝鮮の山脈, 지리교육, 3호, 서울
 松田甲 : (1930) 朝鮮第一の高山咸北の冠幅峰, 朝鮮 9월호
 30), 31) 川山繁太郎 : (1926) 白頭山と白頭山脈, 文教の朝鮮, 10월호
- 32) 정창희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 33), 34) 中村新太郎 : 전계서
 中村新太郎 : (1925) 甲山長津高原の南縁,
 小藤文次郎 : (1902) 韓國北部の地勢, 地學雜誌, 14권, 일본, p.399.
- 35)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 36)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 37)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 38)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 39)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 40)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 41)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 42) 山本熊太郎 : 新日本地誌, 古今書院, 동경
 山藤文次郎 : 전계서
- 山田澄良 : 전계서
 43), 44) 山本熊太郎 : 전계서
 山藤文次郎 : 전계서
 山田澄良 : 전계서
- 45) 中村新太郎 : 전계서
- 46) 中村新太郎 : 平壤南方の準平原, 樂浪準平原, 地球 3권, 1925.
 小藤文次郎 : 전계서
 47), 48), 49), 50) : 山田澄良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강석오 : 전계서
 山本熊太郎 : 전계서
- 51), 52), 53) 小藤文次郎 : 전계서
 中村新太郎 : 전계서
 山田澄良 : 전계서
- 54), 55), 56), 57), 58) 山本熊太郎 : 전계서
 小林貞一 : 1931 朝鮮半島地形發達史との關係に對る考察, 地理學評論(1, 2), 일본
- 59), 60), 61), 62), 63), 64), 65), 66), 67)
 中村新太郎 : 전계서
 山田澄良 : 전계서
 山本熊太郎 : 전계서
- 68), 69), 70), 71), 72), 73), 74), 75)
 中村新太郎 : 전계서
 山田澄良 : 전계서
 山本熊太郎 : 전계서
- 76), 77), 78), 79), 80), 81), 82)
 主村新太郎 : 전계서
 山田澄良 : 전계서
 山本熊太郎 : 전계서
- 79) 小岩井兼輝 : (1920) 延日炭田及附近の地質に關する, 朝鮮鑛業會誌 3권, p.230 일본
- 83) 박노식 : 제주도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조사보고서, 서울
- 84) Gilewska, S. ; (1967) Different methods of showing the Relief on the detailed Geomorphological maps, *zf. Geomorphol, N. F.* - 1967.
- 85) Hommond, E. H. ; (1964) An Analysis in Land From Geography ; An Application to Broadscale Land Form mapping. A.A.A.G.
- 86) Klimaszewski, M. ; (1962) Conference of Subcommission on Geomorphological mapping Poland, pp. 3-12, Anay.